(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0호 별책 (2022. 8.), 55-71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2.8.50s.55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번역 제안
-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

안한나*

1. 들어가는 말

교부 오리겐(Origen)이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용했던 칠십인역(LXX)에 대한 전반적인 번역적 재고를 그의 육란성경(Hexapla)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성경 번역에 대한 개정 시도는 고대부터 여러 이유에서 진행되어 왔다. 소위 구약의 메시아적인 본문들을 살펴보면 고대 역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적잖은 신학적인 해석이 가미된 번역적 이견(意見)을 접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번역본도 신약과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구약의 본문에서 예외는 아니며 특히 대표적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관찰되는 해석적 다양성은 이번 『개역개정』의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이번 개정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율법서

2.1. 창세기 22:5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참조, 창 12:2)을 번제로 바치려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학 부교수. hannah.an@ttgu.ac.kr.

했던 사건을 담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창세기 22장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특히 이 장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첫 인물로 언급되는지 그 이유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의가 있다.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부의 해석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1)]

> 『개역개정』
>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 (히 11: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 의하면 히브리서 11:19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의 근거 본문이 창세기 22:5라는 점이다.[2)] 히브리어 성서의 창세기 22:5에는 일인칭 공통 복수격에 해당하는 동사의 삼중 표현에 문예적인 강조점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곧, 아브라함은 모

---

1) E. M. Heen and P. D. W. Krey, eds.,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New Testament X Hebrew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5), 190-194를 참조하라. 안디옥 학파인 시리아의 데오도르(Theodoret of Cyrus), 시리아의 에프램(Ephrem the Syrian), 크리소스톰(Chrysostom), 오리겐(Origen),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몹수에스티아의 데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등의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 케슬러(E. Kessler)는 실제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주해적 전통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 Kessler, *Bound by the Bible: Jews, Christians and the Sacrifice of Isaa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4-99.

2) R. A. Mohler Jr., *Christ-centered Exposition: Exalting Jesus in Hebrew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17), 185. 예를 들면 오리겐(Origen)은 창 22:5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히 11:17을 연결시켜 주해적으로 재해석한다. E. Kessler, *Bound by the Bible*, 94.

3) 창 22:5의 '우리가 가리라'(נלכה), '우리가 경배하리라'(נשתחוה), '우리가 돌아오리라'(נשובה)의 문예적 강조(1cp)는 창 22:2의 이삭에 대한 삼중 강조(2ms)와 더 나아가 창 12:1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본향에 대한 삼중 강조(2ms)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인칭 남

리아의 한 산에 오르기도 전(참조, 창 22:2)에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강조했던 바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구절에 있어 『개역한글』에서 개정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런 해석학적 견해가 반영되어있다.

(창 22:5)

『개역한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개역개정』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새번역』과 『공동개정』과는 달리 『개역개정』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참조, 『개역한글』)'라는 번역으로 어느 정도 히브리어 본문에 나타난 일인칭 공통 복수의 삼중 강조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번역도 다소 아쉬운 것은 『표준』 및 『새번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의역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역개정』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려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할 것을 의미했는지 아니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스스로 예배할 것을 의미했는지 '함께'라는 단어의 삽입이 오히려 모호성을 가중시킨다. 뒤에 나오는 "우리가 … 돌아오리라"라는 부분에서 역으로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존의 한글 번역들은 히브리어 원문의 시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여 필자는 영어의 NRS나 NIV(2011)와 같이 히브리 본문의 문예적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번역으로 '우리가'라는 표현을 '예배하다'와 연결 짓고 더 나아가 본문에 없는 '함께'라는 단어는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NAS는 오히려 '우리가'를 '경배하다'의 동사 앞에만 두었지만 이도 히브리어 원문의 역동성을 반영한 번역은 아니다.

성 단수의 강조점에 대해서는 G. J. Wenham, *Genesis 16-50*, WBC 2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0), 104를 참조하라.

(창 22:5)

NRS	Then Abraham said to his young men, “Stay here with the donkey; the boy and I will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NIV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NAS	And Abraham said to his young men, “Stay here with the donkey, and I and the lad will go yonder; and 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 제안 번역: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2.2.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를 향해 선포한 세 차례의 설교로 구성되어 이뤄졌다. 이 책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구절인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המקום אשר־יבחר יהוה)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4] 신명기의 내용을 역사서와 함께 읽어 내려가면 종국에 모세가 말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의 시온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경의 문맥적 틀 안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대한 언급이 신명기 12장에서 처음 나오기 전 이미 그곳은 선택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약속에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겜의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당부하셨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신 11: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4) 이와 상응하거나 비슷한 표현은 신명기에서 다음 구절에 해당한다. 신 12:5, 11, 14, 18, 21, 26; 14:23, 24, 25; 15:20; 16:2, 6, 7, 11, 15, 16; 17:8, 10, 15; 18:6; 23:16[17]; 26:2; 31:11.

하여 포로기 후 예후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교류가 단절된 소위 사마리아 공동체는 주전 5세기 후반부 시대에 그리심 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지어 종교적 구심점을 형성했다.[5]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한 '오늘날' 그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계명을 가감 없이 전하라는 여호와의 명이 있었기에(신 4:2; 참조, 신 12:28; 13:1)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선지자 모세 이후의 계시인 역사서(전/후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마리아 오경만을 공인된 정경으로 택하기에 이른 것이다.[6] 하여 사마리아 오경의 특징적인 요소는 지금 마소라 사본에서 볼 수 있는 익톨 형태의 '선택하실'의 동사(יבחר)가 카탈 형태인 '선택하신'(בח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신학적인 면에서 매우 독특한 구분점이다.[7] 예컨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장소가 이 산이니이까 아니면 예루살렘이니이까 여쭐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요 4:20-21)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 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택하신' 곳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선택하셨던 곳인지 아니면 선택하실 곳이었던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포로기 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가르는 이데올로기적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개역개정』을 보면 '택하실'의 번역은 신명기 12:11, 14, 18, 그리고 신명기 17:8에만 국한되어있고 나머지 23:16[17]을 제외하고는 다 '택하신'으로 표기 되었다(신 12:5, 21, 26; 14:23, 24, 25; 15:20; 16:2, 6, 7, 11, 15, 16; 17:10, 15; 18:6; 26:2; 31:11). 문제는 한글에서 '선택하신'이란 용어가 과거의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예, '이미 선택하신 곳'). 물론 영어처럼 맥락에 따라 히브리어의 카탈을 과거가 아닌 현재형 동사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나, 영어 성경 번역의 경우 해당 구절의 경우 모두 일관성 있게 미래형 조동사와 함께 표현되었고(예, ESV, NIV, NRS) 그렇지 않은 번역본(NKJ, NAS)의 경우

---

5) J.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Berlin: De Gruyter, 2011).

6) R. T. Anderson and T. Giles, *The Samaritan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Its Origin, History, and Significance for Biblical Studies* (Atlanta: SBL, 2012), 89.

7) J. Dušek, *Aramaic and Hebrew Inscriptions from Mt. Gerizim and Samaria Between Antiochus III and Antiochus IV Epiphanes*, CHANE 54 (Leiden: Brill, 2012), 90.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사마리아 오경의 이문들(variants)이 사마리아인들의 신학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정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 Bowman, *Samaritan Documents Relating to Their History, Religion and Life: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Bowman*, POTTS 2 (Pittsburg, PA: Pickwick, 1977), 9-25를 참조하라.

현재시제의 동사가 사용되었더라도 명백하게 미래시제를 가리키는 현재형 동사의 미래 용법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즉, 해당 절의 영어 역본에 'He chooses'로 표현된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가 선택하신'이 아닌 '그가 선택하실'로 명시되어야 한다. 하여 필자는 현재 기독교의 오경이 고대의 사마리아 오경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관련 신명기 구절의 '택하신'을 '택하실'로 해당 구절을 일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신 14:23)

『개역개정』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ESV And before the LORD your God, in the place that **he will choose**, to make his name dwell there, you shall eat the tithe of your grain, of your wine, and of your oil, and the firstborn of your herd and flock, that you may learn to fear the LORD your God always.

NR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in the place that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you shall eat the tithe of your grain, your wine, and your oil, as well as the firstlings of your herd and flock, so that you may learn to fear the LORD your God always.

NIV Eat the tithe of your grain, new wine and olive oil, and the firstborn of your herds and flock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so that you may learn to revere the LORD your God always.

* 제안 번역: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3. 선지서

3.1. 이사야 53:11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기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적 수신사(受信史)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먼저 신약을 살펴보면 사도들을 포함한 신약 기자들이 구약의 중요한 메시아적 증거 본문으로(proof text) 이사야 53장의 일부를 자주 인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예, 요 12:38; 행 8:32; 13:39; 롬 10:16; 벧전 2:22, 24, 25 등).[8] 특히 이사야 53:11은 쿰란 사본(1QIsa[a], 1QIsa[b]; 4QIsa[d])과 칠십인역의 사본적 증거의 일치로 레닌그라드 사본에 나타난 마소라 본문(MT)이 본문 비평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9] 이를 반영하듯 쿰란과 칠십인역의 사본적 증거를 지지하는 영어 번역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

(사 53:11)

『개역한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개역개정』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새번역』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

8) J. C. McCullough, "Isaiah in Hebrews", S. Moyise and M. J. J. Menken, eds., *Isaiah in the New Testament: The New Testament and the Scriptures of Israel* (London: T&T Clark, 2005), 168 fn. 36.

9) 후대의 사본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오도션역(Theodotion), 아퀼라역(Aquila), 심마쿠스역(Symmachus), 불가타(Vulgate), 시리아역(Syriac), 타르굼(Targum)에서 '빛'(אור)이란 단어가 생략된 점은 쿰란과 칠십인역의 일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D. Barthélemy, ed.,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Tome 2: Isaïe, Jérémie, Lamentations*, OBO 50:2 (Fribourg, Suisse: Édition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403; I. Blythin, "A Consideration of Difficulties in the Hebrew Text of Isaiah 53:11", *BT* 17 (1966), 27-31;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399 fn. 43.

『공동개정』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ESV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NKJ	**He shall see the labor of His soul,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My righteous Servant shall justify many, For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NAS	**As a resul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will see *it*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will justify the many, As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NRS	**Out of his anguish he shall see light; he shall find satisfaction** through his knowledge.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shall make many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NIV	**After he has suffered, he will see the light of life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my righteous servant will justify many, and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LXX	**ἀπὸ τοῦ πόνου τῆς ψυχῆς αὐτοῦ δεῖξαι αὐτῷ φῶς** καὶ πλάσαι τῇ συνέσει δικαιῶσαι δίκαιον εὖ δουλεύοντα πολλοῖς καὶ τὰς ἁμαρτίας αὐτῶν αὐτὸς ἀνοίσει

예컨대 영어 번역본 중 NAS, NRS, NIV(2011)는 모두 목적격의 '빛'(אור)이라는 단어를 쿰란과 칠십인역에 입각하여 번역에 반영했다. 심지어 NIV(2011)는 '생명의 빛'이라는 좀 더 의역된 합성어를 삽입했는데 이는 『새번역』에도 나타나 있다. 히브리 사본에서 '빛'이란 목적격의 명사가 누락되면 '그가 볼 것이다'(יראה)라는 익톨형 동사에 목적격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 어색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다음 따라 나오는 익톨 동사인 '그가 만족할 것이다'(ישבע)라는 표현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장 서두에 위치한 전치사구인 '그의 수고함에서'(מעמל)라는 단어는 '그가 볼 것이다'(יראה)의 목적격이 되기엔 어려운 것이 그다음 독립절을 수식하는 '멤(מ)' 전치사구이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NKJ의 경우 '멤

(מ)'의 전치사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해당 전치사구를 익톨 본동사인 '그가 볼 것이다'(יִשְׂבַּע)의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선택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He shall see **from** the labor of His soul'이라고 '멤(מ)'을 그대로 직역해 버린다면 목적어를 상실한 주동사의 표현이 어색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법상의 어려움을 인지한 듯 NAS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대명사인 it을 이탤릭체로 처리한 후 삽입했는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NAS 번역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아쉽게도『개역개정』은 NKJ와 같은 번역적 선택으로 히브리 본문의 '멤(מ)' 전치사구에 대한 반영은 하지 않았다. 좀 더 히브리 본문에 입각한 번역을 한다면 ESV와 같이 다음의 번역을 채택해야 했을 것이다.

> ESV 번역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에서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위의 사본적인 증거들을 고려하면 오히려『개역개정』보다는『새번역』이나『공동개정』이 본문 비평적인 관점에서 충실한 번역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11절의 수고함이 쿰란 사본이나 칠십인역에서 드러난 대로 '빛'(אור)과 연결되면 이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빛"(예, NIV)을 가리키는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한복음 기자는 이사야서의 영광의 빛을 주제로 흑암과 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바라본 메시아임을 강조한다.[10] 다시 말해 마소라 사본의 본문을 따르는 기존의『개역개정』에서는 수난당하는 메시아만 부각되지만『새번역』이나『공동개정』에서는 분명 고초당하신 고난의 종이 종래에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

10) 사 6:10; 9:2와 비교하라. J. Hamilton, "The Influence of Isaiah on the Gospel of John", *Perichoresis* 5 (2007), 146; D. J. Brendsel, "*Isaiah Saw His Glory*": *The Use of Isaiah 52-53 in John 12* (Berlin: De Gruyter, 2014); J. Lett, "The Divine Identity of Jesus As the Reason for Israel's Unbelief in John 12:36-43", *JBL* 135 (2016), 159-173을 참조하라.

* 제안 번역: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에서 빛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혹 개정 과정에서 보수적인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번역진의 중론이라면 ESV나 NAS의 번역대로 '멤(מ)' 전치사구를 동사의 목적격으로 처리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차선으로 각주라도 덧붙여야 하지 않을는지 필자는 생각한다.

4. 시가서

4.1. 시편 16:10

시편 16:10의 경우 대표적인 메시아적 본문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의 설교에서와(행 2:14-36; 참조, 27절)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행 13:16하반-41; 참조, 35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인용되었다. 신약의 그리스어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시편 16:10의 경우 칠십인역 본문에 근접한 인용을 볼 수 있다.

(행 2:27)
NTG[28] ὅτι οὐκ ἐγκαταλείψεις τὴν ψυχήν μου εἰς ᾅδην οὐδὲ δώσεις τὸν ὅσιόν σου **ἰδεῖν διαφθοράν**.

(행 13:35)
NTG[28] διότι καὶ ἐν ἑτέρῳ λέγει· οὐ δώσεις τὸν ὅσιόν σου **ἰδεῖν διαφθοράν**.

(시 15:10)
LXX ὅτι οὐκ ἐγκαταλείψεις τὴν ψυχήν μου εἰς ᾅδην οὐδὲ δώσεις τὸν ὅσιόν σου **ἰδεῖν διαφθοράν**

왜냐하면 마소라 본문의 '샤하트(שחת)'는 명사형으로 사용될 경우 구약에서는 주로 돌이킬 수 없는 침륜의 '구덩이'의 의미로 사냥감을 잡는 덫과 같은 올무 또는 무덤이나 지하세계를 지칭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1] 실제로 구약 본문에 나타난 23번의 명사형 '샤하트(שחת)'의 실례를 들어 보면

11) L. Wächter, "שחת", *TDOT* 14, 595-599.

19번은 '구덩이'라는 의미로 명백히 쓰인 경우인데 이에 상응하는 동사는 구덩이에 물리적으로 빠지거나 구덩이로부터 구해지는 것 혹은 구덩이를 파는 것을 연상시키는 '동작 단어'(verbs of motions)와 병행되어 사용된다.[12]

히브리 동사	영어	한글 (『개역한글』, 『개역개정』)
'타발' (טבל, 욥 9:31)	plunge	빠지게 하다
'하싸크' (חשׂך, 욥 33:18)	keep back (ESV, NAS), spare (NRS), preserve (NIV)	빠지지 않게 하다
'카라브' (קרב, 욥 33:22)	draw near	가까워 지다
'야라드' (ירד, 욥 33:24; 시 30:9[10]; 55:23[24][13]; 사 51:14; 겔 28:8)	go down	내려가다; 던지다, 빠지게 하다(히필)
'아바르' (עבר, 욥 33:28)	go down	내려가다
'슈브' (שׁוב, 욥 33:30)	bring back	끌어 돌이키다, 이끌어 내다(히필)
'나팔' (נפל, 시 7:15[16])	fall	빠지다
'타바아' (טבע, 시 9:15[16])	sink	빠지다
'하파르' (חפר, 시 35:7)	dig	파다
'카라' (כרה, 시 94:13; 잠 26:27)	dig	파다
'하샤크' (חשׁק, 사 38:17)	hold back (NRS), keep from (NIV, NAS)	(사랑하사) 건지다[14]
'타파스' (תפשׂ, 겔 19:4, 8)	trap	잡다
'알라' (עלה, 욘 2:6[7])	bring up	건지다(히필)

12) 트럴(G. V. Trull)은 '스올'과 '무덤'도 언급하며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G. V. Trull, "An Exegesis of Psalm 16:10", *BibSac* 161 (2004), 318.

13) 이 경우는 '샤하트' 명사가 연계형으로 사용되었기에 의역의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의 부가 설명을 참조하라.

14) ESV와 비교하라.

쿰란의 몇 분파적 사본에 나타난 '샤하트(שחת)'도 예외적으로 '구덩이'보다는 '멸망'의 의미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일부 문서에 국한된 것이고 대부분 '구덩이'로 직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반면 칠십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샤하트(שחת)'의 동사(멸망시키다, 썩게 하다, 파멸하다)와 자음상 맞물리는 명사인 '샤하트(שחת)'가 두드러지게 '썩음'(διαφθοράν)이라는 대체어로 나타난다.[16] 칠십인역의 이와 같은 경향은 '샤하트(שחת)'의 어근을 '슈아흐(שוח)'로 보는 대신 '샤하트(שחת)'로 인지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단순한 문법적인 착오가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자음 일치에서 기인한 소위 음부의 '구덩이'와 '멸망' 혹은 '썩음'의 상호교차적인 의미가 종래에는 은유적으로 사용된 '구덩이'라는 단어의 희석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7]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문법적 당위성은 비어버그(R. P. Bierberg), 왈트키(B. K. Waltke), 트럴(G. V. Trull)이 지적한 대로 히브리어 '누아흐(נוח)'의 용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18] '나하트(נחת)'란 단어에 동사 '누아흐(נוח)'에서 파생한 '안식'(rest, quietness)의 의미도 있지만 동사 '나하트(נחת)'에서 유래한 '내려감'(descent)의 뜻도 있다. 실제로 구약에서 '나하트(נחת)'는 여성형(어근 '누아흐') 외에 남성형(어근 '나하트')으로 기능하는 증거가 있다 (예, 창 36:13, 17).[19]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위의 언급한 '구덩이'로 관련 동사와 함께 사용된 19번의 '샤하트(שחת)'의 용례 외에, 드물지만 문자적인 '구덩이'가 아닌 '썩음' 혹은 '멸망'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욥기 17:14에서의 '샤하트(שחת)'는 '구더기'(רמה)와의 문예적인 병행법을 고려할 때 '구덩이'보다는 '썩음'(NIV 2011)에 가깝다. 수트클리프(E. F. Sutcliffe), 왈트키, 트럴은 이 경우 '샤하트(שחת)'는 본문에서 남성형으로 사용되는데 어

15) L. Wächter, "שחת", 598. 참고로 쿰란 분파의 사본인 1QH 13:5-6에서는 시 16:10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미샤하트'란 단어를 통해 '구덩이(에서부터)'로 표현되었다(참조, 시 103:4; 사 38:17; 요 2:7). 배히터(L. Wächter)는 오히려'멸망'으로 볼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1QS 4:12에만 해당하는 사례이고 1QH 13:5-6의 경우는 성서의 인용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직역하여 '구덩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F. G. Martínez and E. J. C. Tigchelaar, eds.,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ume 1 (1Q1-4Q273)* (Leiden: Brill, 1999), 170-171.

16) L. Wächter, "שחת", 598.

17) L. Wächter, "שחת", 598-599; J. Goldingay, *Psalms 1-41, Volume 1*, T. Longman III, ed., BCOTWP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233.

18) R. P. Bierberg, "Conserva Me Domine Psalm 16 (15)",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45), 74-75; B. K. Waltke, "Psalms: Theology of", W.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113; G. V. Trull, "An Exegesis of Psalm 16:10", 317 fn. 57.

19) *BDB*, 629.

근은 '슈아흐(שׁוח)'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20]

(욥 17:14)

NIV	if I say to corruption, 'You are my father,' and to the worm, 'My mother' or 'My sister,'
『개역개정』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시편 103:4에서의 '샤하트(שׁחת)'는 '네 생명'(חייכי)과 '구속하다'(גאל)와의 병행을 고려할 때 '구덩이'보다는 '멸망'(NKJ)이나 '파멸'에 가깝다.

(시 103:4)

NKJ	Who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tender mercies,
『개역개정』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반면 시편 55:23[24]에서는 '샤하트'(שׁחת, 구덩이)가 '베에르'(באר, 웅덩이)와 연계형으로 나타나는데 동사 '야라드(ירד)'를 고려할 때 '가장 깊은 구덩이'('the lowest pit' NRS)로 표현될 수 있으나 ESV는 '멸망'(destruction)으로 NIV(2011)는 '썩음'(decay)으로 '샤하트(שׁחת)'를 각각 의역하였다.

(시 55:23[24])

NRS	But you, O God, will cast them down into the lowest pit; the bloodthirsty and treacherous shall not live out half their days. But I will trust in you.
ESV	But you, O God, will cast them down into the pit of destruction; men of blood and treachery shall not live out half their days. But I will trust in you.
NIV	But you, God, will bring down the wicked into the pit of decay; the bloodthirsty and deceitful will not live out half their days. But as for me, I trust in you.
『개역개정』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0) E. F. Sutcliffe, *The Old Testament and the Future Life* (London: Oates and Washburne, 1946), 78; B. K. Waltke, "Psalms: Theology of", 1113; G. V. Trull, "An Exegesis of Psalm 16:10", 318.

그렇다면 '샤하트(שחת)'의 이런 유동적인 요소는 시편 16:10의 경우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대두시킨다. 예컨대『개역개정』은『개역한글』의 '썩음'을 '멸망'으로 수정하였다.

(시 16:10)
『개역한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개역개정』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편 16:10에는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라아(ראה)'라는 동사와 명사형으로 나타나는 '샤하트(שחת)'와의 조합이다. 한편 시편 49:9[10]도 비슷하게 '라아(ראה)'라는 동사와 '샤하트(שחת)'의 명사가 함께 나타난다.

(시 49:9[MT 49:10; LXX 48:10])
『개역한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개역개정』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ESV that he should live on forever and never see the pit.
NKJ That he should continue to live eternally, *And* not see the Pit.
NRS that one should live on forever and never see the grave.
NAS That he should live on eternally; That he should not undergo decay.
NIV so that they should live on forever and not see decay.
LXX καὶ ἐκόπασε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καὶ ζήσεται εἰς τέλος ὅτι οὐκ ὄψεται καταφθοράν ὅταν ἴδῃ σοφοὺς ἀποθνήσκοντας

『개역한글』은 칠십인역(καταφθοράν) 및 NAS(undergo decay), NIV(2011, see decay)와 비슷하게 '썩음'으로 '샤하트(שחת)'를 번역했지만『개역개정』은 다른 대표적인 번역과는 거리를 두며 '죽음'(מות)으로 대치했다. 그렇다면 '라아(ראה)'라는 동사와 '샤하트(שחת)'라는 명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즉, 시 16:10; 49:9[10]) 적어도 위의 19번에 걸쳐 나타난 '구덩이'와 이에 상응하는 동작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용례와는 다르게 직역보다는 의역에 가까운 '썩음' 혹은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인 히브리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카리(A. Vaccari), 비어버그, 왈

트키, 트럴 등의 주장을 들면 시편 16:10의 '라아(ראה)'와 '샤하트(שחת)'의 조합에서 '샤하트(שחת)'는 "장소명사"('구덩이')가 아닌 "상태명사"('썩음')로 이해해야 한다.[21]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라아(ראה)'는 어떠한 상태에 대한 경험을 나타나는 데 사용되었는데 '죽음'(시 89:48[49]), '불의'(시 90:15; 렘 44:17), '슬픔'(렘 20:18), '고난'(애 3:1) 등의 경우이다.[22] 이외에 '스올', '구덩이', '무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작 단어가 수식하는 동사로 사용되었다.[23]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수의 영어 성경 번역(ESV, NKJ, NIV[2011], NAS)은 의외로 칠십인역의 '썩음'(διαφθορά*ν*, 'corruption, decay')을 시편 16:10 본문의 '샤하트(שחת)'에 대한 번역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NRS는 '샤하트(שחת)'를 대문자 표기로 '구덩이'로, 유대교의 성경인 JPS는 소문자 표기로 '구덩이'로 각각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시 16:10)

ESV	For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Sheol, or let your holy one **see corruption**.
NKJ	For You will not leave my soul in Sheol, Nor will You allow Your Holy One to **see corruption**.
NIV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realm of the dead, nor will you let your faithful one **see decay**.
NAS	For Thou wilt not abandon my soul to Sheol; Neither wilt Thou allow Thy Holy One to **undergo decay**.
NRS	For you do not give me up to Sheol, or let your faithful one **see the Pit**.
JPS	For Thou wilt not abandon my soul to the nether-world; neither wilt Thou suffer Thy godly one to **see the pit**.

상기 영어 번역본이 왜 마소라 본문의 '샤하트(שחת)'의 의미를 대부분 '멸망'이 아닌 칠십인역과 더 근접한 '썩음'으로 대치 번역했는지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겠다. 필경 성서 신학적인 고려가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4]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두 번(행

21) A. Vaccari, "Antica e Nuova Interpretazione del Salmo 16", *Biblica* 14:4 (1933), 420; R. P. Bierberg, "Conserva Me Domine Psalm 16", 82; B. K. Waltke, "Psalms: Theology of", 1113; G. V. Trull, "An Exegesis of Psalm 16:10", 318.

22) G. V. Trull, "An Exegesis of Psalm 16:10", 318.

23) 하갈이 우물('물 구덩이')을 실제 보았다는 것(창 21:19)은 물론 예외이다. Ibid.

24) 예컨대 왈트키(B. K. Waltke)의 인용을 들어 결론짓는 트럴의 주장을 살펴보라. Ibid.,

2:27, 31),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디옥 설교에서 네 번씩이나(행 13:34, 35, 36, 37) 반복하면서 이 '썩음'(διαφθορά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을 피력했다.

『개역개정』
(행 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행 2: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행 2: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행 2: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행 2:31)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행 2: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개역개정』
(행 13: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행 13: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행 13: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행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행 13:37)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행 13:38)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멸망'이냐 '썩음'이냐의 의미의 범위에 있어 상호교차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특정 부분에서 시편의 해당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약과 연계하여 번역할 필요성이 대두된 연고가 아닐는지 필자는 생각한다. 즉, 시편 16:10의 '거룩한 자'는 결국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

319-320.

명한 것은 다윗의 몸은 그들 가운데 무덤에 안치되어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시편 16:10에 있어 과거『개역한글』이 더 기독교의 해석학적 전통을 고려한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히려『개역개정』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 영어나 한글의 대표적인 번역본에 채택되지 않은 번역적 선택을 했는데 이는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더 아쉬운 상황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필자는 해당 구절의 번역을 과거『개역한글』을 따라 일부분 수정하여 복원하기를 제안한다. 히브리 원어의 '스올'과 '구덩이'의 병행법을 원문 그대로 시학미(詩學美)를 살려 '구덩이'로 표현한 경우도(참조,『표준』/『새번역』) 있지만 후반부(시 16:10하반)의 동사가 전형적인 동작 동사가 아닌 모종의 선험적 경험을 암시하는 '보다'(즉, undergo)이므로 '썩음'으로 대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제안 번역: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5. 나가는 말

이어령 전 장관은 "번역이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세심하게 파악하고 전달해야 하는 일"이라 했다.[25] 이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책임을 시사한다. 성서 번역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면밀하게 가늠하여 전달해야 하는 바 생명과 사망의 경계(민 16:48)에서의 극한의 작업을 창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성서공회의『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해 성서학계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참신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새로운 개정판은 히브리 원문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이 되어 많은 성도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며 도구자(度求者)들의 진리의 등대로 역할하기를 소망한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0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24일)

25) 박민영, "이어령 전 장관, '인간의 통번역을 AI가 대체하는 세상 올까?'",「조선일보」, 2017. 4. 26., https://futurechosun.com/archives/22573 (2022. 6. 5.).